

위생·배뇨장애 개선...“위축감 없애고 자심감 회복하세요”

건강 바로 알기 잠복음경 교정

윤종선

강남 슈퍼맨비뇨기과 원장

잠복음경이란 실제 작은 음경이 아니라 정상적인 음경인데도 함몰돼 있어서 외관상으로 작게 보이는 경우이다. 손으로 음경의 기저부를 누르거나 발기 시에는 정상 크기로 보이는 음경이다.

잠복음경은 원인과 모양에 따라 자라고추, 숨은 음경, 함몰 음경, 매몰 음경, 포획 음경, 갇힌 음경, 갈퀴 음경이라고 한다.

◇잠복의 원인

원인으로는 음경 근막의 비탄력성, 음경 기저부의 피부고정 약화, 부족한 음경피부, 포경수술 또는 외상 후 협착, 음경 복측부와 음낭 연결부위의 갈퀴 그리고 치골상부의 과다지방축적 등이 있다.

최근에는 서구화된 식습관과 함께 운동부족으로 비만이 증가하면서 2차적인 잠복음경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체중이 7kg 증가할 때마다 성기는 1cm 씩 복부에 파묻히게 된다. 그래서 고도비만으로 방문한 남성의 경우에는 성기의 흔적을 찾기도 힘든 경우도 있다.

선천적인 잠복음경의 경우 학교에서 화장실 가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이로 인해 위축되고 자신감 없는 확장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행동은 성인이 되어서도 사후나 등 노출된 장소에서 이루어

음경이 피부 속으로 함몰되는 증상 과다지방 축적·외상후 흡착 등 원인 지방제거·현수인대 박리술 등 치료 원인에 따라 수술기법 복합 적용

지는 단체 생활에도 소극적으로 참여하고 회피하게 된다. 그러므로 잠복음경은 조기에 원인을 찾고 교정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교정 수술법

잠복음경을 교정하기 위한 수술은 환자의 상황에 따라 다양하다.

▲지방흡입술 또는 지방절제술=비만이 있는 경우에는 음경이 치골 상부의 지방에 파묻히므로 외부 생식기가 작게 보인다. 일차적으로 체중감량을 위해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을 해야 한다. 살을 7kg 뺄 때마다 성기가 복부로부터 1cm 씩 빠져나오니 고도비만의 경우에는 효과가 아주 좋다.

하지만 선천적으로 치골상부의 과다지방 축적이 있는 경우에는 체중감량을 해도 효과가 거의 없다. 이런 경우에는 치골 주변의 지방을 절제하거나 지방흡입술을 하면서 원인에 따라 현수인대 절제술과 내고정 그리고 피부연장술을 동시에 시행하면 교정 효과가 좋다. 다만 지방절제술은 염증, 혈액순환 장애로 인한 피부괴사, 과도한 흉터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심한 경우가 아니면 지방흡입술을 하는 것이 안전하다.

▲현수인대 박리술=음경 뿌리 부위와 치골은 현



강남 슈퍼맨비뇨기과 윤종선 원장이 잠복음경으로 고민하는 회원에게 교정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수인대에 의해 붙어 있다. 이 부분을 일정 부분 박리해 음경해면체의 노출부위를 길게 하는 방법이다. 현수인대를 박리하면 음경이 약 2-3cm 정도가 연장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발기시 길이는 증가하지 않으며, 평상시에 외성기의 길이연장과 상관없이 사용가능한 음경 길이의 연장 효과가 있다.

▲윤상인대 제거술=드물지만 음경해면체를 강하게 잡고 있는 윤상인대 때문에 잠복음경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치골상부 절개를 통해 양쪽의 윤상인대를 적절하게 박리하고, 현수인대를 부분 절제하는 길이연장술만으로도 교정이 가능하다.

▲선천적 견삭제거술=발기조직인 음경해면체와

음경의 견삭조직 사이에 비탄력적인 선천적 견삭이 있는 경우에는 음경이 밖으로 빠져 나오지 못하고 잠복되어 있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런 경우에는 포경수술 라인을 따라 음경을 전체적으로 박리하면서 강하게 잡고 있는 견삭을 풀어주면 잠복음경이 교정된다.

▲다층 고정술=일반적으로 잠복음경을 교정하면 수개월 후에 음경이 다시 원상태가 되거나 수술 전보다 더 짧아진 경우가 있다. 이것은 음경의 피부 고정 약화거나 수술흉터로 인해 발생한다. 그래서 음경의 뿌리 부분을 여러 층으로 결찰하는 내부 고정술 또는 기저부와 피부를 한 층으로 결찰하는 외부고정술 그리고 이들을 혼합한 복합 고정술을 하게 되면 수술 후 음경이 다시 치골 안으로 밀려들어 가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피부연장술=선천적으로 또는 짧게 된 포경수술 등 이차적인 사고로 인해 음경피부가 짧은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외생식기가 노출이 되기 쉽도록 그만큼 치골 상부의 피부를 연장시키거나 음낭 피부를 이용한 피판술을 하여 잠복음경을 교정한다.

잠복음경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고 한가지 원인에 의해 오는 경우는 드물어서 한 가지 수술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몸 안에 잠복해 있는 음경을 견인하는 고정술은 귀두포피염 등 위생 및 배뇨장애를 개선하고, 운동후 사후나 등 노출이 많은 곳을 다니는 남성에게는 위축감을 없애고 자신감을 세워줄 수 있는 좋은 수술법이다. 원인에 따라 다양한 수술 기법을 복합 적용해야 하는 고난이도의 질환이므로 경험 많고 실력있는 전문의를 방문하는 것이 중요하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심근경색증 12시간 후 병원도착 사망률 1.5배

전남대병원 순환기내과 조경훈·정명호 교수팀 연구결과

보통 혈관이 완전히 막힌 ST분절 상승 심근경색증 환자 중 증상 발현 후 병원까지의 도착 시간이 12시간이 지난 환자가 12시간 이내 도착한 환자보다 사망률이 1.5배 이상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또 병원도착시간이 12시간이 넘는 경우는 나이가 많고 여성이면서 당뇨병을 앓고 있거나 경피적 관상동맥중재술을 적게 받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전남대학교병원 순환기내과 조경훈 교수와 정명호 교수가 ‘늦게 도착한 ST분절 상승 심근경색증 환자의 장기 예후’라는 제목으로 국제학술지에 발표한 연구논문에서 밝혀졌다.

이번 연구는 한국인 급성심근경색증 등록연구사업(주관연구자 정명호 교수)을 통해 국내 ST분절 상승 심근경색증 환자 5800여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것이다. 이번 논문은 지금까지 ST분절 상승 심근경색증 환자가 증상 발생 이후 12시간 이내 병원에 왔을 경우 경피적 관상동맥중재술이 주효하다는 연구결과와는 많이 있었지만, 12시간 이후 도착한 환자들에 대한 연구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발표돼 그 의미가 크다.

논문에 따르면 ST분절 상승 심근경색증 환자 중 증상 발현 12시간 이후 병원에 도착한 환자가 6개월 이내 사망할 확률이 11.2%로 12시간 이내 도착 환자(6.8%) 보다 1.6배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3년 이내 사망률의 경우도 12시간 이후 도착 환자(17.3%)가 1.6배 높았다.

그리고 이번 연구에서 최대한 빠른 심혈관 스텐트 시술인 일차적 경피적 관상동맥중재술의 비율도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일차적 경피적 관상동맥중재술을 받지 않는 비율은 증상 발현 후 12-24시간에 병원에 도착한 환자들(12.4%)로, 12시간 이내 도착한 환자(4.9%) 보다 2.5배 정도 높았다.

이 같은 사망률과 경피적 관상동맥중재술과의 관계는 증상 발현 후 48시간까지 비슷하게 유지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증상 발현 12시간 이후 병원에 도착한 환자(평균 66세)는 일찍 도착한 환자(평균 62세)에 비해 고령이었으며, 여성이거나 당뇨병을 앓은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 논문(1저자: 조경훈, 교신저자: 정명호)은 세계적인 권위 있는 학술지인 ‘미국심장학회지(IF=20.589)’에 게재됐다. /채희중 기자 chae@



환자와 함께, 지역과 함께...조선대병원 ‘개원 50주년’

코로나 예방 간소하게 시상식만

1971년 4월 15일 개원한 조선대병원(병원장 정중훈·오른쪽에서 네번째)이 개원 50주년을 맞은 가운데, 지난 15일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병원 10층 회의실에서 외부인사 초청 없이 각 부문별 대표 수상자만 참석하는 등 간소하게 표창장 시상식만 가졌다. <사진> 최근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700명 대를 넘어

서는 등 코로나19 재확산 상황에서 환자 및 보호자, 교직원 안전을 위한 예방 차원으로 이와 같은 결정을 하게 됐다. 병원의 발전과 명예를 높인 표창자는 ▲30년 장기근속 마취통증의학과 임경준 교수 등 22명 ▲20년 장기근속 순환기내과 고영업 교수 등 20명 ▲10년 장기근속 내과계중환자실 안영준 교수 등 45명 ▲코로나상에 마취통증의학과 조수연 전공의 등 4명 ▲모범상은 정중희 간호사 등 25명이었다.

정중훈 병원장은 “유례없는 감염병으로 모두가 힘든 시기이지만 교직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과 철저한 개인 방역 준수로 잘 이겨내고 있어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면서 “개원 50주년을 맞아 병원 신축 및 첨단 지능형 스마트병원 구축에 힘써 미래 100년을 위한 초석을 만들고, 앞으로도 끊임없는 연구와 발전으로 지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병원이 되기 위해 노력하자”고 말했다. /채희중 기자 chae@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흑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꽉 채운

시베리안 차가버섯



Vitamin House
구입문의 1588-8529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